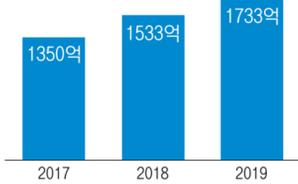


광주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1733억 '사상 최대'

13% 증가...BIS 비율 16% 자산건전성 최고 수준 지역 밀착·베트남 증권사 인수 등 공격 경영 결실

■광주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별도 기준·단위: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은 1733억원으로, 전년 1533억원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수익성은 10%대 성장을 보였고 자산 건전성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전년(2061억원)보다 12.8% 증가한 2324억원을 기록했으며, 고정이자여신비율 0.49%와 연체비율 0.42%를 나타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BIS자기자본비율은 16.02%, 보통주자본비율은 13.32%로,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과 함께 양호한 자본적정성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968년 11월20일, 자본금 1억 5000만원, 직원 57명으로 출발한 광주은행은 창립 52년 만에 자본금 2566억원, 1600여 임직원이 함께하는 광주·전남 대표 향토은행으로 성장했다. 광주은행이 이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배경에는 지역 밀착과 수도권 등 신시장 개척 전략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목포시, 광주광역시 금곡 등 5개 지자체 금고를 신규 유치·수성했다. 점포를 통폐합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달리 광주은행은 지난해 한 해 수도권에 30번째 영업점을 내는 등 6개점을 신설했

다. 이는 지난 2016년에 이어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중국 무석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광주은행은 '광주형 일자리' 핵심 사업을 이끌 ㈜광주글로벌모터스의 3대

주주로서 260억원을 출자하며 지역 먹거리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다. 광주은행은 성장세에 발맞춰 2022년까지 여수신 시장점유율을 광주 4%포인트 높인 35%, 전남은 6%포인트 오른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종욱 은행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영업력 확대 ▲내실있는 질적성장 ▲미래성장동력 발굴 ▲지역의 동반자 역할과 포용금융 강화 등 '4대 경영전략'을 내걸었다. 송 행장은 "2019년 광주은행이 또 한번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준 광주·전남 지역 민과 고객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는 광주은행이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광주·전남 영업력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지역 상생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38.38 (+15.26) 금리(국고채 3년) 1.30 (0.00)
- ↑ 코스닥 686.59 (+4.25) ↓ 환율(USD) 1179.50 (-2.10)



귀뚜라미, 러 냉난방 설비 전시회 12년 연속 참가

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Crocus Expo)에서 열리는 '아쿠아 섬 모스크 2020'(Aqua-Therm Moscow 2020)에 12년 연속으로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러시아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고객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또 출품기종 소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를 전개해 전시기간 실질적인 상담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시장은 98㎡ 규모로 가스보일러 6종, 기름보일러 3종, 온수기 1종, 저탄성 전기보일러 3종, 펌프보일러 1종 등 총 15종의 주력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귀뚜라미는 벽걸이 보일러와 온수기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아크릴 케이

싱 제품을 전시하고, 가스누출탐지기과 지진감지기 시연장치를 배치하는 등 관람객들이 귀뚜라미보일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꾸몄다. 또 전시기간 총 4회에 걸쳐 공개 세미나를 열고 출품기종에 대한 설명과 귀뚜라미의 역사와 경영철학, 품질경영, 연구개발(R&D)도 설명한다. 한편, '아쿠아 섬 모스크'는 지난해 세계 30개국 770개 업체가 참가, 3만여명이 방문한 러시아 최대 냉난방 설비 전시회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새해 첫 해외전시회인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 러시아 수출 길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영업 전략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개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을 공개했다. '갤럭시 S20' 시리즈는 총 3종으로 1억 8백만 화소 카메라와 6.9형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S20 울트라'(Galaxy S20 Ultra)를 비롯해 6400만 화소 카메라와 각각 6.7형, 6.2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20+'(Galaxy S20+)와 '갤럭시 S20'(Galaxy S20)'이다. 갤럭시 S20은 오는 3월 6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국내에서는 이달 20~26일 사전 판매가 진행된다. 가격은 S20 124만8500원, S20+ 135만3000원, S20 울트라 159만5000원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2020'를 열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 울트라'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제공)

코로나19 소상공인 부담 완화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인하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노란우산 대출이자율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하폭은 기존 3.4%에서 2.9%로 0.5%포인트다. 중소기업회는 이번 대출이율 인하로 기존 대출자 11만여명과 신규 대출자 등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완

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회는 지난달 29일부터 합동대응방을 구성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방역마스크 1만 장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태 접수 및 자금지원 등 대정부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 20대 취업자 12.3% 증가...8년 7개월만에 최다

호남통계청 '1월 고용동향' 3만2000명 늘어 총 75만명

1월 광주지역 20대 취업자 수가 8년 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광주 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취업자는 75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만 2000명이 증가했다. 전남 취업자는 95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늘었다. 광주지역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0대 11만8000명, 30대 14만4000명, 40대 19만2000명, 50대 17만8000명, 60세 이상 1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9월 10만9000명에서 오름세를 보이더니 2011년 6월 이래 가장 많은 11만8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3% 증가한 수치다.

전남지역 20대 취업자는 9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30대 14만6000명, 40대 20만7000명, 50대 23만7000명, 60세 이상은 26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광주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3000명), 농업·어업(9000명), 건설업(1000명)은 늘었고, 광공업(-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00명)은 줄었다. 전남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3000명), 건설업(1000명)은 늘었고, 농업·어업(-1만6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은 줄었다. 고용률은 광주는 59.1%로 1.0%포인트 늘었고, 전남은 62.4%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실업자는 광주는 3만명으로 8000명 감소했고, 전남은 3만7000명으로 1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광주는 3.8%로 1.1%포인트 감소했고, 전남은 3.7%로 1.4%포인트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

중소기업서 일할 석박사 인건비 절반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할 석박사의 인건비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부는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2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

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인력을 지난해보다 50.3% 증가한 230여 명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에 1350여 명의 연구인력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14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버려진 공장 아트 팩토리로 부활하다

산업시대 낡은 유산, 문화재생 핵심공간으로 부상
- 광주·전남의 아트 팩토리
-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문화 화제

계절의 시간 건너 마음속에 피어나는 율회에

지역문화

창작자들의 인큐베이터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소통 콘서트 인기

에향 초대석

서울 우리소리박물관관장 최상일

"토속민요, 대중문화 창작 씨앗 가능"

문양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송 부당한 것에 맞선 결기의 문학 부산 김정환 문학관

2020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출발의 문 앞에서 '위로가 되는 문학' 꿈꿔요

2020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

김정환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⑦

20세기 초 유럽 건축, 각기둥 도입 이유

에향의 만난 이 사람

창극 '패왕별희'의 여장남자 소리꾼 김준수 20년만에 광주 개인전 가진 화가 하성훈 함께, 히말라야 책 낸 오지 여행가 문승영 'KIA' 떠나 '롯데'로 이적하는 안치홍

바다에서 우주까지, 고희 드림 여행

- 집박한 분청과 신비한 우주 - 진한 향 유자와 커피